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363>

JCCT 2024-11-46

노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 대인관계 만족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of Accomplish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이성은

Lee Sungeun*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조사 2023년도 자료의 응답자 중 65세 이상 노인 9,52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의 성취감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만족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 만족은 노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 정도는 높아지며 이는 삶의 만족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인관계 만족과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노인, 성취감, 삶의 만족, 대인관계 만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of accomplish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r this, 9,526 older persons aged over 65 years among respondents of 2023 Social Survey data were analyzed. Study results showed that first, feelings of accomplishment of the elderly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at is, higher level of feelings of accomplishment increas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Second,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lderly had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That is,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increas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Third,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elings of accomplish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at is, higher level of feelings of accomplishment increase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leading to increased level of life satisfactio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interventions to increase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having feelings of accomplishment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Feelings of Accomplishment,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Mediating Effect

*정회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7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27,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lees@pusan.ac.k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 Korea

I. 서론

노년기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약화, 질병의 발생,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 직업의 상실과 사회적 관계의 축소 등 다양한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공식적 활동에서의 배제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은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한다.

우울은 자신감이 낮아지고, 갑작스러운 기분과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매우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심각해질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1]. 노인의 우울은 자살생각을 높이며 회복탄력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2]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노년기는 직업과 학습 및 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일상에서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가 더욱 감소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성취감은 노인의 정신적 웰빙에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3], 자아존중감은 노인이 경험하는 상실 및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또한 이러한 성취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아통합감은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통합감은 노인의 문화역량을 증가시키며 이를 매개로 성공적 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노인의 경우 통증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자아통합감에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 [6]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성취감과 같은 심리적 측면이 노인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도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및 신념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자기 자신 및 삶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7]. 이러한 성취감은 자기 자신의 정서 상태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인의 성취감과 대인관계,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이 인식하는 성취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대인관계 만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2023년도 사회조사 자료이다. 사회조사는 전국의 가구 중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로 [8] 전국적 대표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 자료 중 65세 이상 노인 9,52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성취감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1~5점 척도가 부여된다. 이를 역점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감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만족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1~5점 척도가 부여된다. 이를 역점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본인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1~5점 척도가 부여된다. 이를 역점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연령은 만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

별은 남성, 여성을 각각 1, 0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 1~4점 척도가 부여되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을 각각 1, 0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동부, 읍면부를 각각 도시와 농촌으로 설정하여 1, 0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100만원 미만'부터 '800만원 이상'까지 1~9점 척도가 부여되었으며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AS 9.4와 SPSS 27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만족이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세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9].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9]. 대인관계 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1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 9,526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of study sample

변수		Mean(SD)/N	%
통제변수	연령	74.2(7.1)	

	성별	남성	4,231	44.4
		여성	5,295	55.6
	교육수준		2.0(1.1)	
	혼인상태	유배우자	6,128	64.3
		기타	3,395	35.7
	지역	도시	5,918	62.1
농촌		3,608	37.9	
소득		2.6(1.7)		
독립변수	성취감		3.1(0.9)	
매개변수	대인관계 만족		3.6(0.8)	
종속변수	삶의 만족		3.2(0.9)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74.2세(sd=7.1)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4,231명(44.4%)이었으며 여성이 5,295명(55.6%)이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6,129명(64.3%), 배우자 없음이 3,395명(35.7%)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은 도시가 5,918명(62.1%), 농촌이 3,608명(37.9%)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2.0(sd=1.1)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평균 2.6(sd=1.7)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성취감은 평균 3.1(sd=.9)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만족은 평균 3.6(sd=.8)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평균 3.2(sd=.9)로 나타났다.

2) 성취감, 대인관계 만족,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성취감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노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만족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역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대인관계 만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성취감, 대인관계 만족, 삶의 만족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feelings of accomplishment,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life satisfaction

변수	성취감	대인관계 만족	삶의 만족
성취감	1		
대인관계 만족	.356***	1	
삶의 만족	.757***	.385***	1

***p<.001

3)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 만족의 매개효과

노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만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모델 1에서는 성취감이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취감은 대인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성별, 혼인상태, 지역, 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 경우 대인관계 만족이 낮아졌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대인관계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도시에 거주할 경우 대인관계 만족이 낮아졌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델 2에서는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취감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성취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이 낮아졌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3에서는 성취감과 대인관계 만족을 동시에 투입하여 두 변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성취감과 대인관계 만족은 모두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수 가운데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모델 2에서와 같은 방향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 3에서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모델 2에서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인관계 만족은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9].

표 3. 성취감이 대인관계 만족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s of feelings of accomplishment on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and life satisfaction

		모델 1		모델 2	
		B	β	B	β
통제변수	연령	-.00012	-.00107	-.00219	-.01736*
	성별	-.12832	-.07852***	-.02496	-.01387
	교육수준	.02116	.02779*	.02900	.03458***
	혼인상태	.05368	.03167**	-.00390	-.00209
	지역	-.11932	-.07128***	-.00084	-.00045
	소득	.03027	.06224***	.03130	.05845***
독립변수	성취감	.30875	.33342***	.75038	.73598***
R ²		.1400		.5789	
F		221.28***		1869.16***	

*p<.05, **p<.01, ***p<.001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10]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부트스트랩을 통해 산출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만족이 성취감과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10].

표 4. 성취감과 대인관계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able 4. Effects of feelings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on life satisfaction

		모델 3	
		B	β
통제변수	연령	-.00217	-.01722*
	성별	-.00674	-.00374
	교육수준	.02600	.03100***
	혼인상태	-.01152	-.00617

	지역	.01611	.00874
	소득	.02700	.05042***
독립변수	성취감	.70654	.69299***
매개변수	대인관계 만족	.14199	.12896***
R ²	.5932		
F	1734.66***		

*p<.05, **p<.01, ***p<.001

표 5.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만족의 매개효과

Table 5. Effects of feelings of accomplishment on life satisfaction and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

변수	Effect	Boost SE	Boot LLCI	Boot ULCI
성취감-> 삶의 만족의 간접효과	.0438	.0032	.0378	.0502

IV.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대인관계 만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성취감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취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만족은 성취감과 삶의 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으나 대인관계 만족을 통해서도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감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 수준이 높은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때 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위축감을 느끼게 되면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 감정은 대인관계의 양과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은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우울 수준이 낮아지며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1]. 노인들의 자아통합에는 가까운 가족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가장 의미있는 주변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12],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자기관리 수준이 높을수록, 즉 자기관리를 잘 할수록 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성취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보다 잘 수용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은 노인에게 성취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학습과 이의 활용을 통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교육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취미 및 관심사의 발견과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 참여를 통해 노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14].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술교육이 노인이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활동의 참여를 도우며 성취감을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5].

또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학습도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은 자녀관계 만족도를 높이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 자녀와 같은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의 만족에 긍정적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16].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도 성취감 경험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파크골프와 같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

노인들은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내와 극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가족들의 지지를 경험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이와 관련해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시니어가 인식하는 삶의 성취감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8]. 이와 같이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관계 및 삶의 만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인식하는 성취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만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취감의 원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방안의 모색을 위해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어떠한 요인들이 노인의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T.W. Kim, J.M. Lee, J.W. Jung, "A Study of Elderly Poverty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5, No. 3, pp. 71-102, September 2015.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5.35.3.71>

[2] H.S. Yoon, S.R. Yeom,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2, No. 1, pp. 233-255, March 2017. DOI <https://doi.org/10.21194/kjgsw.72.1.201703.233>

[3] J.H. Han,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y, Self esteem, Achievement on Mental Wellbeing among the Aged,"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 645-652, November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645>

[4] J.H. Bae, "The Buffering Effect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12, No. 1, pp. 39-67, June 2011.

[5] Y.M. Cho, "The Relationship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uccessful Aging of Elderly: Double Mediating Effect of Ego-Integrity and Cultural Competency,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Wisdo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10, pp. 357-365, October 2021.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1.19.10.357>

[6] H.S. Jeong, H.S. Oh, "Mutu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go Integrity and Depression in Elderly: Multi-dimensional Influenc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3, pp. 262-272, June 2015. DOI : <https://doi.org/10.7475/kjan.2015.27.3.262>

[7] M.J. Wang, E.J. Seo, N.H. Cha, "A Study on Self-Achievements and Related Factors in Elders,"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Vol. 20, No. 1, pp. 23-30, March 2009.

[8] Korea Statistics, <https://www.k-stat.go.kr/metasvc/mseal100/statsdcdta-popup?orgId=null&statsConfmNo=101018&kosisYn=Y>. 2023.

[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January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10] A. F. Hayes,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Vol. 76, No. 4, pp. 408-420, December 2009. DOI <https://doi.org/10.1080/03637750903310360>

[11] J.S. Lee, H.A. Kim, "The Impact Family Relationship on Life of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lness*, Vol. 12, No. 2, pp. 27-36, May 2017. DOI : <https://doi.org/10.21097/ksw.2017.05.12.2.27>

[12] Y.I. Lee, D.J. Tang, K.H. Kim, "A Narrative Inquiry on Self-Integration of the Dwelling Elderly: Centrally Post-Reading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7, No. 1, pp. 71-94, March 2019. DOI : <https://doi.org/10.31352/JER.17.1.71>

[13] J.J. Park, S.J. Park, I. Kim,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on Human Rights Aware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6, pp. 751–762, November 2023.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3.9.6.751>
- [14] O.H. Yoon, "Direction of Elderly Education in the Ag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0, No. 2, pp. 1–10, March 2024.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4.10.2.1>
- [15] A.Y. Kim, H.J. Kim, "Qualitative Research on Changes in Self-esteem in the Elderly Who Participated in Art Education as Lifelo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6, No. 4, pp. 41–67, August 2021. DOI : <https://doi.org/10.15815/kjcaes.2021.16.4.41>
- [16] M.Y. Kim, "The Effects of Smartphone Use on Spouse Relationship Satisfaction, Child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Acquaintance Relationship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219–228, March 2018.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9>
- [17] H.J. Lee, R.B. Lee, J.M. Heo, "The Meaning of Park-Golf Experience as Serious Leisure of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61, No. 3, pp. 177–192, May 2022. DOI : <https://doi.org/10.23949/kjpe.2022.5.61.3.13>
- [18] S.H. Choi, "The Effect of Senior Consumers' Social Capital on Cultural Consump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Sense of Life Achievement,"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Vol. 24, pp. 75–101, April 2022. DOI : <https://doi.org/10.34227/tjocc.2022.24.75>